

“귀 없고 찌그러지고...千佛은 민초들의 모습”

8개월간 돌 1000개에 부처 그린 조병연 한국화가

행촌미술관 ‘풍류남도 아트프로젝트’... “만불까지 그리고 싶어”
내달 30일까지 미항사 자하루미술관서 작가 50명 함께 전시

“부처를 그리다 보니 마음이 차분해 지면서 도를 닦는 기분이었습니다. 지난 8개월간 한 시도 쉬지않고 매달린 작업이 끝을 맺으니 출가분해지더군요. 사람들이 천불(千佛)을 보고 마음의 위안을 얻길 바랍니다.”

19일 만난 조병연(52) 작가는 올 여름 댕친 폭염 탓인지 부쩍 여윈 모습이었다. 그는 행촌미술관에서 올해 진행한 ‘풍류남도 아트프로젝트’에 참여하며 돌 1000개에 부처를 그린 ‘천개의 돌부처’를 최근 완성했다.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작업한 결과물들이다.

부처들은 행촌미술관이 ‘2016 광주비엔날레’ 기념점으로 미항사 자하루미술관에서 10월30일까지 여는 ‘해남. 천년의 시간이 머무는 곳’ 전시에서 만날 수 있다.

한국화로 민중들의 모습을 그려온 조 작가는 지난해 이승미 관장을 만나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프로젝트 참여와 함께 천불 작업을 권유받았다. 이 관장에게 운주사 천불을 소재로 한 그림을 선물한 것이 계기였다.

불교신자인 그는 예전부터 천불 그림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쉽지 않은 작업이라 엄두를 내지 못하던 차였다. 흔쾌히 승낙을 하고 난 후 깜짝 놀랄 소리를 듣게 된다. 종이 아닌 돌에 그림을 그려보자는 이야기였다.

“큰 종이를 네모칸 1000개로 나눠 부처를 그리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승미 관장님이 손바닥만한 돌 두개를 가져오길래 장난인지 알았죠. 관장님이 ‘돌을 잘 살펴보면 부처가 보여요’라고 하길래 재미있겠다 싶었죠.”

행촌문화재단 이마도작업실에 입주해 작업에 들어갔다. 하루 두차례 물이 빠질 때마다 근처 바닷가에서 돌을 10여개씩 주워 날랐다. 평생 종이에만 그림을 그리던 그에게 돌 그림은 쉽지 않았다. 다행인 점은 분체와 먹, 세필 붓 등 평소 쓰던 회구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초창기에는 하루 2~3개 그리기가 쉽지 않

더라구요. 작업이 어느 정도 손에 익자 하루 10~20개씩 할 수 있었어요. 8월말까지 일정에 맞춰야 했기 때문에 술도 먹지 않고 그림에만 매달렸죠.”

대흥사, 미항사 등에도 천불이 있다. 전문 화공들이 제작했기에 세련되면서도 비슷비슷한 모습이다. 이에 비해 조 작가 작품은 화순 운주사 천불처럼 각기 다른 모습에 못생기고 투박한 점이 특징이다. 돌을 가공하지 않고 모양에 따라 그렸기에 가능했다. 그림을 그리는 시간보다 돌을 관찰하는 시간이 더 걸린 적도 있었다.

좌불, 와불, 서 있거나 날아가는 부처, 한쪽 얼굴이 찌그러졌거나 귀가 없는 부처. 평온하거나 고뇌에 찬 부처도 있다. ‘천개의 돌부처’는 종교적 대상과는 거리가 있다. 순수하고 자유로운 화가 내면과 회화적 기교가 전통적인 불상을 만나 친진난민함을 보여준다.

가장 힘든 점은 지루함이었다. 매일 똑같은 근육을 쓰다보니 팔도 아팠다. 600개를 마쳤을 때 아내에게 “천불나서 못하겠다”고 투정을 부린 적도 있었다. 하지만 작업을 마친 이후에도 200개를 더 완성했다. 미항사에서 작품판매를 하면 채워넣기 위해서다. 물론 부처를 통해 얻은 수익은 좋은 일에 사용할 예정이다.

“천불을 보면 어떤 건 어머니를, 어떤 건 아내를 닮은 부처가 있어요. 미술관을 찾은 관람객들도 ‘누구를 닮았다’는 말을 자주해요. 천불은 우리, 민초들의 모습입니다. 천불을 완성하니 만불(萬佛)까지 그리고 싶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처를 그려보며 좋은 세상이 오기를 바랍니다.”

한편, 이번 전시에는 조 작가와 천불 작업을 비롯한 작가 50명이 참여한 1123점을 선보인다. 행촌미술관과 해남종합병원, 이마도 작업실, 미항사, 일지암, 백련사 등에서 진행한다. 방정아·이인·이수에 작가 역시 불교회화를 현대미술 시각으로 표현했다.



해남 행촌미술관 ‘풍류남도 아트프로젝트’에 참여한 조병연 작가가 이마도작업실에서 돌 1000개에 부처를 그린 ‘천개의 돌부처’를 완성한 후 살펴보고 있다. 작품은 미항사 자하루미술관에서 만날 수 있다. <행촌미술관 제공>

이수경 작가는 해남 지역 초등학교에 남아 있는 이순신 장군, 로맹의 ‘생각하는 사람’ 등에 왕관을 씌우는 ‘왕관 프로젝트’를 선보인다. 또 김은숙 작가는 1월부터 8월까지 하루 세계 밥상을 사진으로 기록한 ‘은숙씨의 밥상’을 출품한다. 박경목·조종성 작가, 예술가그룹 ‘APP’는 녹우당 입구 연동마을 버스정류장과 미항사 인근 송촌 버스정류장을 예술정류장으로 바꿨다. 문의 010-3052-5870.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금봉미술관 ‘흠쳐본 가을’展

11월 27일까지
박행보 화백
가을 작품 전시



▶마음의 반향-추경

금봉미술관이 가을을 맞아 ‘흠쳐본 가을’전을 11월27일까지 연다.

이번 전시는 금봉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금봉 박행보 화백 작품 중 가을과 관련된 작품 25점을 선별해 선보인다.

박 화백은 눈으로 본 자연을 그대로 화폭에 옮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먼저 재해석한다. 작품 ‘가을’, ‘마음의 반향-추경’, ‘서석대의 가을’ 등을 통해 우리 산수를 정답게 바라본 점을 느낄 수 있다.

서양 인상파 작품을 보듯 밝은 색깔과 향토적 정서가 어우러지며 정감어린 분

위기를 연출한다. 산 능선이나 소나무 줄기 등은 굽적한 선으로 그려 기개를 표현하고 초목색 등으로 화폭을 채우며 화사한 느낌을 자아낸다.

필선과 채색으로 발묵법과 파묵법, 구름법 등 다양한 기법을 사용해 자연과 기(氣), 사람이 어우러진 화면을 보여준다.

또 ‘이서마을’ 등 가을 시골 풍경도 전시한다. 낮은 돌담, 기와집 등 지금은 변화버린 고향에 대한 애뜻함을 전한다.

그밖에 야채를 그린 ‘전가풍미(田家風味)’, 붓과 국화가 어우러진 ‘시창청공(詩窓淸空)’ 등도 함께 선보인다. 문의 062-269-9883.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만종’ ‘이삭 줍는’ 밀레 작품 감상

‘인문지행’ 문화예술기획
25일 광주극장 ‘영화의 집’



인문학 공동체 ‘인문지행’이 진행하는 16회 문화예술기획이 오는 25일 오후 2시 광주극장 ‘영화의 집’에서 열린다.

문화예술기획은 매월 1회씩 세계의 미술관 작품들을 시민들과 함께 감상하는 자리로 앞으로 4회에 걸쳐 파리 오르세 미술관 소장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기차역을 리노베이션해 지난 1986년 문을 연 오르세 미술관은 연간 330만명이 찾는 세계적 미술관으로 약 8000점을 소장하고 있다.

이번 강좌에서는 장 프랑수와 밀레와 귀스타브 쿠르베를 중심으로 앙그르, 외

젠 들라크루아, 오노레 도미에 등의 작품을 살펴본다. 그 자신이 직접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그림을 그린 ‘농부 화가’ 밀레가 그린 ‘만종’, ‘이삭 줍는 여인들<사진>’ 등을 감상한다. 신하나 영웅의 삶을 미화하는 대신 시대적 모습을 있는 그대로 그린 ‘사실주의’ 화가 쿠르베 작품으로는 ‘오르남의 매장’, ‘부상당한 남자’ 등을 만난다.

심옥숙 박사(인문지행 대표)가 진행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문의 010-2656-9208, 인문지행 : cafe.daum.net/harete. <김미은기자 mekim@>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명물 박물관 탄생!!
세계 70여개국에서 수집한 조각·장식 6,000여점 전시

세계 조각·장식 박물관
World Sculpture·Ornament Museum

☎ (062) 222-0072, 226-5800 일요일 휴관
(구. 카톨릭센터 뒤 금남문역 1층)

아프리카 스타 조각
양근로전시회
- 400여점 전시 -
■ 장소: 세계조각·장식박물관 상설전시관

국민·대·통·합을 위한

영호남 문화대축전

2016 YEONGHONAM CULTURAL FESTIVAL

광주천변 특설 행사장(광주공원 앞) 9/30(금) ~ 10/2(일) 3일간

충장축제 기간중

문화를 통한 교류의 장

어울림을 주제로 한 체험·참여 프로그램

영·호남 특산물 전시 판매

부스 참여업체 모집

영·호남 지역자치단체의 홍보 및 특산물 판매를 위한 부스 참여업체를 모집합니다. (선착순 모집 배치)

문의 (062) 220-0555, 010-7174-1257

